



운창와의 선원총림을 가다

1000년 전 그곳과 오늘 ㉔

하안거와 동안거

결제는 정진해 부처되자는 무언의 결의



2009년 화엄사 선승선원 하안거에서 스님들이 참선을 하고 있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안거(安居)’란 곧 우안거·하안거의 약칭으로서 몸과 마음을 고요(靜止)하게 하여 일정 기간 정주(定住)함을 뜻한다. 산스크리트어로는 바르시카(varsika)·바르사(versa)라고 하고, 팔리어로는 바사(vassa)라고 하는데, 모두 우기(雨季)를 뜻한다.

우기가 곧 안거임을 뜻하게 된 것도 인도의 기후와 관련이 있다. 인도는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가량이 몬순(monsoon:계절풍)기로 강풍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린다. 저지대는 모두 물에 잠기고, 서식하는 벌레·개미·파충류 등 생물들은 모두 고지대로 이동한다. 이때 수행자들이 다니면 위험하고, 많은 생명을 밟아 죽이게 된다. 그래서 일정한 곳에 모여 정주(定住)하면서 외출을 금하고 좌선 수행토록 했는데, 이것이 안거제도의 기원이다. 본래 바라문 사이에 행하던 것을 불교에서 채용한 것이라고 한다.

인도에서는 본래 하안거만 있었고 동안거는 없었다. 동안거가 생긴 것은 불교가 중국·한국 등 북방으로 전해진 이후인데, 북방에는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동안거를 신설해 하안거 때와 같이 일정 기간 한 곳에 정주(定住)하면서 좌선 수행토록 한 것이다. 동안거를 일명 ‘설안거(雪安居)’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중국에서 처음 동안거를 실시한 것은 여러 종파 중에서도 선종(禪宗)이라고 한다. <범망경>에는 하안거와 동안거에 대해 함께 서술했지만, 실제 선불교 이전에는 동안거가 시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본의 선승 도원(道元:1200~1253)은 <정법안장> ‘안거’장에서 “<범망경>에는 ‘동안거’

라는 말이 있지만 그 범(동안거)은 전해지지 않았으며, 다만 구순안거(九旬安居, 하안거) 법만 전해졌다(梵網經中, 雖有冬安居文, 其法不傳, 但九旬安居法傳焉(선림상기전, 3권, 冬安居)”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동안거를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일본에서는 ‘영평 도원 이후’라고 한다. 도원(道元, 1200~1253)이 목조선의 본산 천동사에서 4년간 수행하고 돌아온 이후인데, 이로 본다면 중국에서도 선종 이전에는 실제 동안거가 실시되지 않았던 것 같다. 동안거는 현재 중국·한국·일본에만 있고, 동남아는 물론 티베트에도 없다. 다만 선불교에서 언제쯤 처음 동안거를 시작한 것인지의 앞

반(半)이 되는 45일을 ‘반하(半夏)’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반결제’ 또는 ‘반살림’이라고 한다. 시작이 반인데 이미 수행기간의 반을 채웠으니 나머지 기간도 아무런 마장(魔障)없이 공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하안거 결제일은 해제일·동지·정월 초하루와 함께 총림에서는 4절(節) 가운데 하나일 만큼 큰 행사다. 결제날에는 총림의 모든 대중과 신도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결제법어·다회(茶會)·대중공양 등 많은 행사가 이어진다. 특히 이날 점심공양은 보기도 드문 성전이다. 결제의식은 석 달 동안 단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모두 원만히 안거를 마칠 것을 발원하는 행사이며, 동시에 열심히 수행 정진해 부처가 되자는 무언의 결의가 담겨 있다.

정진에서도 결제의식 당일 날 어떤 행사를 했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선원청규> 2권 ‘결하(結夏)장’과 <적수백장정규> ‘결제의’ 장에 나와 있으나 주로 상경례가 많다.

결제날이 되면 새벽 예불 후 수좌·유나·감원 등 대소 소임자들과 대중들은 모두 방장실로 가서 삼배를 올린다. 대중들은 “안거가 되어 건병(巾瓶, 수건과 물병, 즉 방장화상을 모시게 됨을 뜻함)을 받들게 됐습니다. 오직 방장화상의 범력에 의지하오니 난사(難事) 없기를 바라나이다”라고 하면, 주지는 답례로 “다행히 함께 안거를 하게 되었소. 또 한 바라건대 모든 대중들도 서로 범력을 도와서 어려운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라고 한다. 이어 아침 공양을 마치면 범담에서 주지의 결제법문이 이어진

다. 그리고 각 소임자들과 대중들은 돌아가면서 상견례를 하는데, 그 대상과 과정 등이 매우 복잡하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는 것은 결제 동안 다름 없이 원만하게 안거를 회향하자는 의미다.

당송대에는 안거 기간에 ‘오참상당(五參上堂)’이라고 하여, 매일 5·10·15·20·25·말일 이렇게 여섯 차례 상당법어가 있었다. 그리고 인도불교에서는 결제 기간에는 보름에 한번씩 ‘포살’을 통해 모든 대중이 모여 법문을 듣고 파라제목차(戒조목)를 낭송했다. 또한 각자 계율에 저촉되는 일이 있으면 참회했다. 해제일에는 대중들로부터 잘못을 지적받는 자자(自恣)의식도 함께 행했는데, 선원총림에서도 이런 의식이 있었는지는 잘 알 수 없다. <선원청규>와 <적수백장정규> 등에도 언급이 없다. 율장이 중국에 전해지기는 했어도 그대로 시행되지는 않았던 점을 고려한다면 이런 행사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해제일의 의식은 결제 때와 비슷하다. 아침 공양 후 해제법어가 끝나면 모든 대중들은 승당에 모여 해제 인사를 한다. 먼저 수좌·감원·유나 등 6지사와 6두수들이 방장화상에게 “법(法)은 원만했으며, 일체 난사(難事)는 없었습니다. 이는 생각건대 모두 방장화상의 도력 때문입니다. 그 은혜 감당할 수 없나이다”라고 하면, 방장화상도 “원만히 안거를 마치게 되어서 매우 감사하다”는 인사말을 한다.

그런 다음 6지사와 6두수가 다 함께 대중에게 고한다. “대중들께서는 모름지기 다탕(茶湯, 차 공양)을 드시고 행각 길에 오르시기 바랍니다. 뜻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한 다음 대중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석별(惜別)의 차(茶)’를 마신다. 덕담(德談)을 나누어 가며 차 공양이 끝나면 대중들은 소임자와 문도 등 일부만 남고 모두 행각 길에 오른다. 총림에서는 떠나는 납자들에게 짚신 2~3결레 정도의 노자(路資)를 준다. 납자들의 행각은 단순한 행각이 아니라 수행의 연장선상에서 만행(萬行)을 하고 훌륭한 선승을 찾아가서 그동안 공부한 것을 절차탐마하는 기간이다.

여기서 유명한 해제 법어를 하나를 소개한다. 취암정창(翠巖參淨)선사가 해제날(夏末)에 설한 법어

하안거 결제일은 총림 4절 중 하나 납자의 행각은 공부의 절차탐마

로서, ‘취암하말(翠巖夏末)’ 또는 ‘취암미모(翠巖眉毛, 취암선사의 눈썹) 공안’이라고 한다. <벽암록 제8칙>에 나온다.

취암화상이 하안거 해제일에 범상에 올라가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속은 필자의 해설, 또는 삽입 어이다.

“여름 결제 동안 졸근 나는 형제(대중)들을 위하여 설법했소. (고사에 법을 잘못 설하면 눈썹이 빠진다는 말 있는데...) 자, 보시오. 아직도 내 눈썹이 남아 있습니까?”(선의 세계는 개구즉착이다. 단연

히 눈썹이 남아 있을 리가 없다). 보복(保福) 화상이 말했다. “도독질한 놈은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하였다. (취암화상은 개구즉착임을 뵈면 알면서도 석 달 동안이나 삼금삼금 언어로 도독질 했으므로...) 이에 대해 장경(長慶) 화상은 “눈썹이 점점 더 자라고 있고”이라고 했다. (훌륭한 법문을 했으므로 오히려 자라고 있다는 것) 운문(雲門) 화상은 “관(關, 관문)”이라고 했다. 그 자체가 환구법문이라는 뜻이다. (翠巖, 夏末, 示衆云. 一夏以來, 爲兄弟說話, 看翠巖眉毛在麼. 保福云. 作賊人心虛. 長慶云. 生也. 雲門云. 關.)

동안거 때는 12월 1~8일까지 7일간 용맹정진을 하는데, 중국 선원총림에서는 이것을 ‘선칠(禪七)’이라고 하여 하루 3시간 정도만 자면서 정진한다. 우리나라는 전혀 잠을 자지 않는다. 부처님께서 12월 8일 새벽 별을 보고(見明星) 도(道)를 깨치셨으므로 그것을 기념해 우리도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의지이다.

납자로서 하안거를 무사히 마치는 것을 ‘파하(破夏)’라고 하고, 금족(禁足)의 규칙을 깨고 밖으로 다니는 것, 또는 중도에 탈락하거나 안거를 그만 두는 것을 ‘파하(破夏)’라고 한다. 스승의 입적이나 부모의 사망, 또는 건강상 이유 없이 파하를 하면 당사자의 이미지에 크게 손상이 된다. 그리고 안거를 마치면 해당 총림에서는 ‘좌하유(坐夏由)’라고 하여 안거증명서를 준다. 좌하유는 다음 폐담(掛塔, 임방)시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된다. 이것이 없으면 다음 안거 때 임방하는데 많은 애로점이 따른다.

결제 때에는 소임을 정해 그 명단에 벽에 붙이는데 그것을 ‘집사단(執事單)’이라고 한다. 집사(執事)란 소임을 가리킨다. 우리나라에서는 용상방(龍象榜)이라고 하며, 깨달아서 용상 같은 존재가 되라는 뜻이다.

결제일에 대해서는 4월 15일~7월 15일까지와 4월 16일~7월 15일까지 두 가지 기록이 있다. 시작하는 날에 하루 차이가 있는데, 각각 문헌적 근거를 갖고 있다. (사본불산본보결(彌繁補闕)행사초)에는 “안거(하안거)는 4월16일에 시작해 7월15일에 마친다”고 기록돼 있으며, 이 기준을 따른다면 동안거는 10월 16일부터 다음 해 1월15일까지가 된다. 물론 인도에는 동안거가 없었다.

그런데 중국 선종사원에서는 이와는 달리 4월 15일~7월 15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선원청규> 2권 ‘결하(結夏)·해하(解夏)장’ 그리고 <적수백장정규> ‘월분수지(月分須知)’ 장에 기록돼 있는데, 두 곳 모두 동안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이것은 동안거가 정식 안거가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하안거 결제일에 준하면 동안거는 10월 15일부터 다음해 1월 15일까지가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하안거는 4월 15일~7월 15일까지, 동안거는 10월 15일부터 다음해 1월 15일까지로, 중국 총림의 규정을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운창화 도서출판 민족사 대표 hanghwa9@hanmail.net



불조정맥 中英韓3개국어판 화두 中英韓3개국어판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3개국어판 < 불조정맥 > 종조 석가모니불로부터 현 78대에 이르기까지 불조정맥진영(佛祖正脈眞影)과 정맥진법계(正脈法法傳)를 온전하게 갖춘 최초의 불조정맥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다년간 수집, 정리하여 기도와 관조 끝에 완성하였다.

3개국어판 < 화두 >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평생 동안 제자와 도반들, 선사님들과 나누었던 선문담. 현대에 생생히 살아있는 '화두'! 3개국어판으로 재출간되어 자랑스러운 한국의 선(禪)을 세계에 소개하고 있다. - 발간 예정

도서출판 바로보인 031-534-3373 www.zenparadise.com

(주)현대에너지 2011년 최신행 농협농자 1년거치 7년분할상환

농협농자지정업체 (농수산물건조기, 저온냉장·냉동)

고객의 행복한 생활, 풍요로운 생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책임있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 1평 ~ 20평까지

건조기(11평) 건조기(22평) 건조기(33평)

본사공장직영점. 0502-228-1510 HP.011-673-2623

전국 사찰전문 공급업체 다영보이

순수 자연 야생보이차

- 중국 운남성과 접경지역인 베트남 북부 청정지역의 야생차원을 현지인들이 채취하여 현지 공장에서 제품화하고 수입하여 국내에서 소분, 포장한 제품입니다.
- 정식 수입통관 절차 및 부산세관 식약청의 무농약·중금속 검사를 모두 통과 하였고 2010년 한국식품연구소에서 무농약 입증검사 실시 통과한 제품입니다.
- 다영보이는 1996년 약 12년 이상 정성을 다해 산차로 숙성하여 마지막 단계에서 증기로 쪄서 숙차병차로 만들었으며 철저한 관리에 의해 보관하여 부드럽고 깊은 보이차만의 맛과 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산차 45,000원 38,000원 산차 70,000원 65,000원 병차 165,000원 (600개 한정수량) 99,000원

• 판매원 : 마 하 물 02)732-1520
• 제조원 : 다 영 보 이 02)959-8874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267 토마토포라코오피스텔 1507호

www.dayungtea.co.kr / www.다영보이.kr